

# 평안축복

<밍후이 팩스> 중간  
2020년 11월 21일 제 6기  
'돌파프로그램' 파일 내려받기  
컴퓨터판 : <https://git.io/fgp88>  
안드로이드판 : <http://git.io/fgma88>

## 생명의 선택

'증오'로 구성된 공산유령  
신의 국도를 회멸하려 한다면  
그것은 폭력으로  
동방을 점령했고  
또 기만으로 유인해  
서방 민주를 변질되게 했다면

'자유'라는 핑계로  
탐욕을 방종해, 그로 하여금  
무절제한 욕욕에 빠뜨렸네  
'정치는 정확하다'는  
마주 (魔咒) 하에  
사람더러 자아만 키워서  
신과 점점 멀어지게 했다면

세상의 선량한 사람들이여  
당 싸움에서 절대 두 눈이  
모호하지 말지어라  
신을 굳게 믿는 그 트럼프  
그가 바로 신의  
사도 (使徒) 라네

그는 인간속에서  
신의 뜻을 전달하여  
공산사령 (邪靈) 을  
흠가루로 짓부시려 한다면  
다시 신이 미국에  
부여한 사명을 받들고  
사람들을 도와 전통의  
길로 돌아가게 한다면  
( 뒷면에 계속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우체국의 일반 직원 호프킨스는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선중에서 “제보자”로 등장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관건적인 요백주 이다. 호프킨스는 펜실베이니아주 우체국 국장이 직원에게 11월 4일에 받은 우편투표 대선 표를 전부 3일의 우체국 소인을 찍으라고 요구했고, 그런 방법으로 바이든 지지표가 능히 유효 개표에 집계 될 수 있었다고 적발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그는 미국 우체국 총감독 판공실 특공의 위협을 받았다. 11월 10일, 이 녹음을 미국 비이익조직“진상공정”창시인 제임스가 인터넷에 폭로했다. 우체국 특공 러셀 스트루서가 말했다: “이 폭풍은 점점 사나워 지고 있다. 내가 이 곳에 오게된 원인은 이 폭풍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며 폭풍이 더욱 미쳐날뛰기 전에 끌어당겨 오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공의 목적은 호프킨스를 협박해 공소를 철회시키고 그의 변호사 선임을 막기 위해서 이다. 현재 호프킨스는 이미 “무급휴가”조치를 받았다.

제보자가 보복타격을 받는 일이 엄숙한 미국 대선에서 출현 될 줄은 생각조차도 못했다. 사기 선거에 대한 “폭풍”은 이미 억제할 수

없으며, 증거는 부단히 폭로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18세 여성은 기자에게 그녀는 그가 분양하고 있는 2살반이 된 애완견 명의로 바이든 대선 표 투표에 성공했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알렸다. 애완견의 등록번호가 사회안전 번호로 사용됐던 것이다.

근일, <국가 당안>은 또 바이든 텍사스 선거캠프 책임자 라다스 존스가 텍사스 하리스 군 대선 표 사기에 연루돼 “연방조사국구금수사”를 받고 바이든 캠프에서 제명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존스 등 사람들은 양로원, 사회복지중심 혹은 빈곤지역에서 대선 표를 제출하면 상품권을 발급하는 수단으로 선민더러 우편투표를 하게 하고는 투표용지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말했다.

11월 1일, 제임스가 트위터에 발표한 글들 중에서 콜로라도주 민주당 집행위원회 멤버인 커리스 잭스가 말하는 동영상도 있었는데 그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거짓말을 할 것이다. 나는 사기를 칠 것이다. 나는 절도도 할 것이다. 이런 정치환경속에서 이것이야말로 도덕수준에 가히 용납되기 때문이다.” 이토록 적나라한 표현은 사람으로 하 (3면에 계속)



트럼프는 역병에 전염됐지만 3 일만에 회복되어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 가치관의 대결 : 전통으로 회귀

트럼프 : “미국에서 우리는 정부를 숭배하지 말고 신을 숭배하라”

11월 7일 오후, 미국 여러 개 매체는 바이든이 “대선 승리”했다는 가짜 소식을 선포했다. 바이든의 지지자들은 거리에 나가 행진하며 승리를 경축했다. 그 중 동성연애자, 변성자, 미국 공산당성원, “흑인 폭동” 등이 있다. 과거에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라틴계 AlejandraCaraballo는 변성자이다. 그는 매체를 통해 바이든이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선포를 듣고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손에 가마, 사발, 소래 등을 쥐고 밖으로 뛰어나가며 “나는 드디어 해탈된 느낌이야.”라고 외쳤다.

4년전 민주당 대통령 오바마 임직기에 자유주의는 범람해 전 미국은 대마합법화가 여화여도(如火如荼)했다; 동성연애가 횡행하고; 변성인 혹은 성향인식이 부동한자는 자유롭게 남여 화장실 선택을 허용하고; 동성인의 결혼을 허용하여 ‘자유주의’는 가장 높은 ‘정확한 정치’로 됐다.

트럼프가 임직한 후 인륜(人倫)을 위배한 변의 행위에 대해 크게 규탄했으며, 변성자의 병역을 금지했으며, 미국을 전통으로 회귀하게 했다. “모

든 사람의 명은 모두 명이며’ ‘흑인의 명 만이 명’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보수당파의 대법관을 인명하여 거슬러 올라와 제멋대로 방종하는 자들을 축동시켰다. 그들은 트럼프가 그들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인정했다. 이런 젊은이는 트럼프 반대 주력이다.

한 롱 아일랜드 거주 시민은 만약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민주당 영도자의 통치하에 과거 오바마의 노선을 이어 인륜을 위배한 사회 난상이 필연코 더욱 엄중해질 것이고, 도덕이 떨어져 가능하게 더욱 수습할 수 없게 되어 미국사회는 어둠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인 지역의 한 유명한 기독교 목사는 30년전의 미국은 하느님이 사랑하는 국가였는데 그러나 현재는 많은 사람이 이미 신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감탄했다.

<공산주의 유형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의 서두편에서 말했다: “동유럽 공산주의 진영은 이미 해체되었으나 공산주의 사령(邪靈)은 따라서 소멸되지 않았다. 반대로 이 마귀는 이미 우리의 세계를 지배했다. 인류는 절대 락관해서는 안된다!”

책에서 지적했다: 공산주의 사령은 교활하고 간사한 꾀가 많다. 천변만화 하고, 폭력 혹은 급진은 유일한 표현형식이 아니다. 가끔은 “평화 반전(和平反战)” “환보주의(环保主义)” “전지구화(全球化)” “정치정확(政治正确)” 등 정의로운 깃발을 들거나; 또는 “선봉예술(先锋艺术)” “성해방(性解放)”, 마약합법화, 동성연애 등 인간의 욕망을 방종시켜 사람더러 일종의 사회적인 흐름으로 착각하게 한다. 하지만 그것의 근본 목적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전통의 일체를 회멸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을 상실하게 해 만겁에서 되돌아올 수 없는 심원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아 냈다. 그는 줄곧 신을 믿고 전통가치관을 회귀할 것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미국 심지어 중국의 많은 기독교 신도들은 모두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는 말했다: “미국에서 우리는 정부를 숭배하지 말고 신을 숭배하라.” “미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신의보호, 가르침과 지혜를 얻고자 한다. 동시에 이 위대한 국가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아주 풍부하며 우리들의 자유, 가정과 신앙은 신의 축복으로 인해 오랫동안 존재할 것이고, 우리는 이에대해 비할바없이 겸손하여야 한다.”

(1면의 계속)

오늘

당신이 어느 당파를 선택하는

문제만이 아니며

바이든 혹은 트럼프를 옹호하는

문제는 더욱 아니라네

당신은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거늘

천당으로 돌아갈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 갈지

목소리

# ‘정과 사의 대결’은 공동한 목소리를 불러 일으키다

미국 대선이 웨이보(微博)에서 관람한 독자수는(블로그에서 조회수) 이미 100억 회를 넘겼다. 중공 관방매체에서 거의 모두 미국 대선을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일부분 자영매체는 보기드물게 정면적인 평론으로 “2020 미국 대선은 궁중 암투극이 아닌 가치관의 전쟁이며 정(正)과 사(邪) 최후의 대결로, 국운이 달린 분수령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기사는 많은 대륙 네티즌들의 공감과 호평을 받았다.

이 글 뒤의 댓글이 한쪽 목소리만 들리는 것에 대해 독자들은 많은 공감을 가졌다. 그 중 댓글 “이는 인(人)성과 사악의 대결이자 또 가치관의 대결이다. 맞는 말이다.” 뒤에는 5천 개의 ‘좋아요’가 달렸다.

그리고 다른 한 댓글 “확실히 가치관의 대결이며 좋은 문장이다”에도 2천여개의 ‘좋아요’가 달렸다. 한 네티즌은 스스로 돈을 벌려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좌파로 기울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청년학생이다. 스스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으면 반드시 좌파로 기울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복지대상자들이다. 만약 당신은 반드시 스스로 노동하여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면 “좌”로 될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했다.

한 사람은 신당인방송국 사이트 “이번 선거는 진정으로 미국의 민주를 모독했다. 최고 법원은 반드시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미국이 정의를 얻게해야 한다. 이는 한차례 인류의 생사존망의 위기이며 퇴로는 바로 죽는 길이니 트럼프 힘내세요!”

호주 시드니대학 사회학 박사 친진(秦晋)은 미국이 이 몇년간 백좌(白左)정책의 영향을 받아 이미 어두움의 변두리에 섰다. 때문에 이번 대선을 더욱 높은 시각에서 본다면 광명과 암흑의 대항이며 정의와 사악의 대항이라고 인정했다.

미국필라델피아 유명한 화인 정신과 의사 양징똘(杨景端)은 트럼프는 4년전 대통령이 된다음 미국의 전통을 회복하고, 미국의 <헌법>을 보호하고, 미국인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지켜 줬다고 표시했다: “때문에 이번 대선은 두가지의 식형태에서의 선택이다. 트럼프를 선택하는 것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이런 이념, 이런 정신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는 절대로 간단한 선택이 아닌 미국이 전통을 회복하는 운동이다.”

대기원

(1면의 계속) 여금 역겹게 한다. 이곳이 아직도 미국인가? 이익을 위해 가히 염치불구 할 것인가?

트럼프 지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트럼프 지지, 민주당 부정선거를 철저히 조사하자”라는 대행진을 전개했다. 11월 8일, 애리조나 주에서 차량 행진에 참가한 미국주재 대만의 퇴직 공정사 청제커는 경건한 기독교 신도이다. 그는 말했다: 만약 바이든이 손으로 <성경>을 누르고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교도들은 대면할 수 없다. 기독교신도는 하느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바이든인가 아니면 트럼프인가를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 독품을 흡입하는 바이든의 가족을 보면 또 민주당의 부패, 자유를 방종, 가짜를 만들고 기편한다; 하지만 트럼프 캠프는 신을 경앙한다. 가장 보수적인 아미시파족마저 마차를 몰고 와서 그를 지지했다.

“사기와 기편한 측에서 대표적인 것은 부패, 사악이다.” 뉴욕 화인 소전은 “이번 대선은 매개인에 대한 고형이다. 당신의 마음에 양지가 있는가 없는가 도대체 정의를 선택하는가 안하는가를 보아 낼 수 있다. 사람은 신이 만든 것이다. 신은 양지와 정의를 당신의 마음에 주입시켜 주어 당신더러 양지에 따라 행사하고 사람을 위하라고 했다. 미국으로, 자유의 땅으로 온 화인들, 우리는 마땅히 양지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원

## 모습 한가지 질문에서 시작된 쓰린 마음

11월 9일, 성공적으로 선임된 공화당참의원 제푸 밴드루는 포커스 뉴스에서 말했다: “사람에게는 \_ ‘밴드를 떼어낸

다음 안의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한마디 말이 있다. 트럼프가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_ 정치계의 추태를 폭로한다.

미국 대선을 겨냥해 중공 관방매체는 미국이 140억달러로 바뀌온 각종 선거 난상(乱象)을 중점 보도하면서 미국을 “시간과 힘을 소모하는 민주지” “미국식 민주는 웃음거리”라고 비웃었다. (뒷면에 계속)



# 공산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



캘리포니아주 선미집회: “사회주의를 버리자”란 전시판을 내놓은 동시에 트럼프대통령을 지지했다.

부정선거에 직면해 한 대륙 이민이 감탄하며 말했다: “우리가 천리만곳 중국에서 미국으로 온 것은 공산주의를 체험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 대만 교포는 “중국 대외선이 미국을 침투해 흑금(黑金), 도박판이

모두 미국에서 연출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공산주의 최악에 대해 체험이 있다. 그들은 민주당이 당선돼 공산주의 길을 걷는 것을 희망하지 않기에 트럼프를 지지했다. 사우스캘리포니아주 비벌리힐스가든에서 집회에 참가한 화교, 월남계, 필리핀계, 일본계와 라틴계 민중들도 전시판을 들고 트럼프를 지지했다. 화교 장여사는 말했다: “공산당국가에서 걸어온 사람들이 누가 또 사회주의 길로 돌아가려 하겠는가?”

집회에 참가한 베트남계 인사는 그들은 베트남공산당의 통치를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탈출한 화교부부도 그들은 캄보디아 공산당의 박해를 받았다고 표시했다.

또 쿠바에서 온 한 남성은 현장에서 끝없이 주변사람들과 사회주의를 가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거짓말

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편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인민들은 자유가 없고, 말할 권리도 없으며, 충족한 음식이 없고, 생명과 재산의 안전성도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룽쥘(龙驹)가 대기원에 발표한 <트럼프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기세가 대단한 정과 사의 대전>이란 문장에서 표시했다: 트럼프정부는 오직 공산주의 이 사악한 근원을 해결해야 만이 세계는 비로소 다시 전염병과 핵전쟁의 위협을 받지 않고 높은 담장 아래의 중국인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똑똑히 알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캠프는 반드시 미국 헌법 정치체제를 보호하는 등불이 되어 자유의 빛이 영원히 세계를 비추어 영원히 세계 각 체제의 모범이 될 것이다. 때문에 이번 대선은 미국인민의 대사이며 뿐만아니라 전세계의 대사이며 더욱이 중국인민의 대사이다.

**대기원**

(3면의 계속) 이에대해 유명한 정치가 후핑(胡平)은 민주제도가 얼마나 많은 결점, 얼마나 많은 부족점과 문제가 있든지 불문하고 그것이 사용하는 “사람 머리를 세다”로 “사람 머리를 자르다”(중공이 정권을 갈취한 다음 역차 운동에서 8000만 명의 비정상 사망을 조성했음을 말함)를 대체하는 이 한 점에서만해도 그것이 전제(专制)보다 백배 만배 더 우월하다고 인정했다.

시사평론가 란수(蓝述)는 미국 대선이 비록 난잡하지만 결국 최고법원을 통해 자신의 착오를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삼권분립원칙의 우월성이

다. 하지만 중공 일당독재는 몇 십년래 이미 대량의 사회모순을 만들어 중공내부의 정권약탈 투쟁이 줄곧 끊이지 않았다. 이는 중공자신으로서 절대로 풀수 없는 매듭이 됐다.

중공은 매년 만억에 달하는 정치안전비용을 소모해서야 비로소 이런 사회문제를 은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상 노백성들의 원성은 도처에 자자하다.

네티즌이 “신핀충(新品葱)”망에 “당신은 무엇때문에 공산당을 싫어 하는가?”라는 질문을 올렸다. 그러자 많은 댓글이 달렸다. 예를들면: “공산당의 공사(公社)가 나의 10명

이 넘는 동족 형제들을 굶어 죽게했다.” “국가보안은 나의 여자 친구의 여권을 압수하여 그로 하여금 외국에 가서 적시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 병원에서 죽게 만들었다.” “공산당이 손을 너무 길게 뻗는 것이 싫다. 당신의 돈지갑 뿐만아니라 또 당신의 사상까지 관할하려 들고, 당신더러 자신도 믿지 않는 물건을 충심으로 옹호하게 하며, 심지어 당신이 아버지 어머니보다 가깝다고 말하게 한다...세상에는 완미한 제도가 없다. 서방에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공산당처럼 이렇게 모든 좋은점을 독차지하는 정권은 아마 지극히 적을 것이다.”

**대기원**

# 화교 호리원은 전염병을 두려워 하지않아 “영웅 증서”를 수여 받았다

뒤에서는 구급차가 경보를 울리면서 달리고 앞에서는 총망히 지나가는 사람들로 분주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평온하게 가부좌를 하는 것을 보고 경상적으로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다 .



호리원인 스원리 (石文丽) 는 파룬궁수련을 하기에 전염병에 감염될 근심을 하지 않는다 .

금년 3월 \_5월 말에 뉴욕시의 전염병 상황은 고봉에 달했기에 많은 호리원들이 전염될까 걱정돼 문을 나서 출근하기 두려워했다 . 그바람에 많은 손길이 필요한 노인들은 호리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호리회사는 호리원을 찾기위해 발을 동동 굴을 정도였다 .

맨해튼에 거주한 65세 호리원 스원리 (石文丽) 는 강의회사의 호리원이다 . 그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회사에 나가 본인의 직무를 견지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전염될까 걱정돼 문을 나서지 못하는 호리

원들의 빈자리마저 채워 더욱 많은 일을 감당했다 . 그는 일주일에 3명 노인을 돌봤다 . 이때문에 그는 호리회사에서 발급한 <영웅 업적 증서> 를 수여 받았을 뿐만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했다”, “당신의 영웅사적은 역사에 기재 된다” 는 칭찬을 받았다 .

스원리가 전염병을 두렵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신심은 그가 파룬궁을 수련하는데서 온다 . 그는 원래 엄중한 견주염 때문에 팔을 들수 없었고 어려서 부터 “심장박수가 심하게 낮다” 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으나 수련후 전부 사라졌다 . 그는 말했다 : “파룬궁은

우주특성 ‘진선인 (真善忍)’에 따라 수련하기에 아주 강대한 에너지가 있어 병독을 억제하고 소멸할 수 있으며 , 능히 인체내의 일체 불정상적인 상태를 규정할 수 있기에 ‘외래의 사가 침입 못하게’ 합니다 .” 그는 시간만 있으면 중앙공원에서 연공하고 공법을 가르치지만 전염병에 감염될 근심은 하지 않는다 .

“우리가 여기에서 가부좌 할때의 음악은 아주 평온하지만 뒤에서 구급차가 경보를 울리면서 지나갑니다 . 여기에 바로 병원이 있기 때문이지요 . 앞에는 총망히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로 분주한데 그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주 긴장해 하고 있습니다 . 그들은 우리가 아주 평온한 것을 보고 경상적으로 말합니다 :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 어떤이는 엄지 손가락을 세우고 , 어떤이는 우리를 향해 두손 모아 허스를 합니다 .”

스원리는 말했다 : “전염병이 언제 결속 될지는 모릅니다 . 풍파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인류사회 도덕의 추락으로 아주 많은 천재인화를 초래했습니다 . 인간세상에는 불안정 요소들이 충만한데 더욱 많은 사람들이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 (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믿어 평안을 획득하기를 희망합니다 .”

신당인

## 반사 홍 2대 (红二代)는 “하늘이 변할 것”을 기대하며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

중국 민중도 미국 대선을 관주하는 정도가 미국 선민보다 못지 않다 . 상황을 아는 인사의 말에 따르면 중공 고위 군인 2세들도 “하늘이 변할 것”을

기대하며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연임 할 것을 지지하는데 오직 트럼프만이 비로서 중공당국을 억제하고 타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유명한 매체인 고위 (高瑜) 는 미국의 목소리에서 말했다 : 그녀가 소유하는 위챗 단체채팅방에 몇 개 단체채팅방은 모두 고위 군인 2세들이며 군인들인데 그녀의 남편과 남동생도 모두 군인이기 때문이다 . 자유지식인과 고위 군 ( 뒷면에 계속 )

(5면의 계속) 인 2 세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런 소식을 전파하고 받아보기를 열중한다고 했다.

원 중앙당교 교수인 고위 군인 2 세 차이샤 (蔡霞) 는 여러 차례 중공은 “정치좀비”이고 중공체제는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

고 공개 비판했다. 그가 말했다: 한번은 밥상에서 한 고위 군인 2 세가 말했다: 우리는 반드시 사고 해 봐야 한다. 1989 년 ‘6.4’ 이후 이 국가는 전부 빼돌게 나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1966 년 ‘10 년 겁난’ 부터 사고해 봐야 한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1949 년부터 공산당이 중국

에서 건립된 후 이 체제가 과연 맞는가 틀리는가를 사고해 보아야 한다 고 했다. 마지막에 한 고위 군인 2 세가 말했다. 진정한 사고는 반드시 1921 년 중공이 탄생해서부터 시작해 중화민족이 이 백년간 걸어온 길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원

## 명감 무엇 때문에 “신은 사람의 마음을 본다”고 하는가?

사람은 마땅히 성실하고 후 해야 하며 어떠한 음모도 모두 덮어 감출 수 없는바 다만 더 큰 징벌을 초래할 뿐이다.

옛적부터 오늘날까지 세간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가히 신불 (神佛) 과 귀신영의 존재를 보았거나 감촉할 수 있었다. 청나라 일대 문학종사 기효람이 바로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열미초당필기》 속에 이런 이야기를 적었다. 한 학자가 밤에 악비묘를 지날때 우연히 “우경대 (右鏡臺)”를 관리하는 사경리 (吏) 를 만났다.

사경리는 말했다: 송조대 이후 사회도덕은 더욱 추락되고, 위장치장, 은폐기편이 늘었으며, 어떤이는 나쁜일을 하고도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때문에 하늘에서 많은 신들이 합의하여 “업경 (業鏡)”을 좌대 (左臺) 에 옮겨 전문 그런 진정한 소인 (小人) 을 비추고, 우대 (右臺) 에 “심경 (心鏡)”을 증가해 전문 그런 위군자 (偽君子) 를 비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좌우로 두대의 원광경 (圓光鏡) 이 마주 서로 비추자 사람의 내심세계는 비할바없이 생생하게 체현됐다: 사견 (邪見) 을 고집하는 자, 과의를 추구하는자, 마음이 먹처럼 검은자, 관직으로 몸값을 올리려는 자, 이익에 빠져 동전 구린내를 뿜는 자 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외모를 살펴보면 또한 용모나 태도는 훌륭하지만 심성이 서글서글하고 명주마냥 깨끗한 자는 찾기 힘들었다.

“나는 심경의 옆에 서서 매 개인의 진실한 심리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해 3 달에 한번씩 여기에 와서 동악신군 (東岳神君) 에게 회보 합니다. 이것에 의해 그들의 죄와 복을 정합니다. 당신은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마땅히 성실하고 후박 (厚朴) 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음모도 모두 덮어 감출 수 없는바 다만 더 큰 징벌을 초래 할 뿐입니다!”

밍후이왕

## 진상 중공은 종교자유를 파괴하는 우두머리

3.67 억이 ‘삼퇴’해 공산사당을 멀리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다

10 월 29 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기간에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엄중한 종교자유 남용자 \_ 중국 (중공), 이란과 북한 \_ 억압 정책을 강화해 자신들의 국민을 진압했다.” “중국 (중공) 은 모든 신앙자에게 선전포고 (宣戰) 했다. 불교도, 기독교인과 파룬궁수련생에게도 해당한다. 중공은 종교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파룬궁은 우주대법으로서 '진, 선, 인 (真、善、忍)' 을 근본 지도로 하며,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기이한 효과가 있을 뿐만아니라 사회에 복을 주어 이미 전세계 100 여개 국가에 널리 전해졌으며 유독 중공만이 탄압을 하고 있다. 밍후이왕의 정보 통계에 따르면, 2020 년 10 월, “추석” “중양절”기간에 65 명 파룬궁수련생이 불법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 중에 65 세 이상의 노년 파룬궁수련생이 19 명 이고, 최고 연령은 80 세 이다. 2020 년 10 개월에 적어도 374 명 파룬궁수련생이 중공에 의해 불법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중공은 함부로 파룬궁수련생을 탄압하고 그들의 신앙자유를 박탈한다. 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악렬하고,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인도를 상실하는 인권 침범이다. 중공관원과 그의 추종자는 신불 (神佛) 에 대해 큰죄를 범했으므로 필연코 하늘의 징벌을 받게 된다. 백년 홍조는 끝나게 되며 천멸중공은 바로 현시에 있다. 지금까지 3.67 억 사람들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해 공산사령을 멀리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

밍후이왕